

# 가족 요인과 학교 요인이 초등학생의 그릿에 미치는 영향

이정화  
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The Effects of Family Factors and School Factors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Grit

Jung-Hwa Le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Hansei University

**요약** 사교육 열풍 속에서 최근 초등학생은 선행학습에 과도하게 노출되어 학습 흥미의 감소와 공교육 불신 등 부작용을 광범위하게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본 연구는 노력 지속과 흥미 유지로 대표되는 그릿(GRIT)이란 개념에 주목하여 초등학생의 그릿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요인과 학교 요인이 무엇인지 탐색하였다.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5차년도(2022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초등학교 4학년 학생 2,030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부모의 양육태도, 가족 간 대화 빈도, 교사관계, 주관적 성적 인식, 자아존중감, 주의집중,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중 가구소득, 거주지역, 부모학력 등이 그릿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패널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초등학생의 그릿에 대한 일반화를 시도하였고, 그릿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는 배경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부모의 따스한 양육 태도, 교사와의 관계가 초등학생의 그릿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초등학생의 가족 요인과 학교 요인을 고려한 통합적인 그릿 증진 프로그램 마련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Abstract** Recently, elementary school students have experienced various side effects due to preemptive learning. In order to respond to associated social problems, we focused on the concept of grit, which represents persistence and maintenance of interest, and explored family and school factors that affect grit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Data obtained from 5th-year Korean Children and a Youth Panel Survey (2022) were used. In total, the data of 2,030 4th-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were analyzed. The analysis showed that parenting attitudes, frequencies of family conversations, teacher relationships, subjective sexual perceptions, self-esteem, ability to concentrate, socioeconomic status, household income, residential area, and parental education level influenced grit. The study verifies (after controlling for background factors) that a warm parental attitude and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teachers enhance grit. The study results indicate a need to establish an integrated grit promotion program for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at focuses on family and school factors.

**Keywords** : Elementary School Students, Grit, Family Factors, School Factors, Parents' Warm Parenting Attitude, Teacher Relationship

---

\*Corresponding Author : Jung-Hwa Lee(Hansei Univ.)

email: rabit3150@naver.com

Received March 11, 2024

Accepted May 3, 2024

Revised April 17, 2024

Published May 31, 2024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

사교육을 통한 선행학습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초등학생의 선행학습이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초등 의대반'까지 등장할 정도로 초등학생의 선행학습 연령이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에서 계속해서 앞당겨지고 있다[1].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선행학습에서는 수학능력뿐 아니라 예체능, 취미 교육도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였다[2].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과도한 선행학습에 노출되면 학교수업에 흥미를 잃거나 교사의 수업권을 침해하기도 하고[3,4], 심한 경우 교사와 학원 강사를 비교하여 공교육을 자신의 학습과 성장에 있어서 보조적인 존재로 생각하기도 한다[5].

초등학생들이 학습에 흥미를 느끼도록 하거나 적응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최근 아동의 올바른 진로 탐색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평가 받는 그릿(Grit)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릿은 꾸준한 노력과 포기하지 않는 기질을 의미하는데[6], 2000년대 중반부터 아동교육에서 성취와 자기주도성을 강조하는 교육 신념과 밀접하게 연관됨으로써 아동에게 필수적인 심리적 자본으로 여겨지고 있다[7]. 그릿은 학업에 대한 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으며[8], 그릿과 교과에 대한 흥미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9]. 즉, 초등학생에게 있어서 그릿은 학습에 흥미와 열의를 가지도록 하며, 동시에 심리적으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변수로 볼 수 있다.

그릿은 개인의 기질로서, 타고나거나 아주 어린 생애 단계에서 형성되는 특성이지만, 주변환경과 대인관계, 학습에 의해 성장할 수 있다. 청소년에게 있어서 가장 친밀한 관계인 가정에서의 부모의 양육태도는 그릿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10], 교우관계는 그릿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나타났다[11]. 또래 공동체 의식과 또래집단의 사회적 지지로 획득할 수 있는 또래맥락은 그릿을 향상시키는 주요인으로 검증되어[12], 그릿의 후천적 향상이 가능함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그릿과 관련된 주요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그릿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중학생, 고등학생, 운동선수와 같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중학생의 그릿에 대한 연구는 자아탄력성이나 정서지능과 같은 심리적 요인과 환경, 성별 등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요인들이 그릿을 증진시킬 수 있는지[13,14], 혹은 중학생의 그릿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지, 학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15,16]에 대해서 주로 연구

가 이루어졌다. 고등학생의 그릿에 대한 연구에서는 주로 교사의 행동이나 태도가 고등학생의 그릿에 영향을 미치는지[17]와 그릿이 진로와 관련된 변수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지[18,19]에 대해서 연구가 이루어졌다. 다른 대상으로는 운동선수의 그릿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는데, 이는 운동선수에게 있어 그릿은 동기적 차원의 자기결정성 증가로 운동 지속을 가능케 하고, 운동중단으로 연결되는 부정적 정서를 차단하는 요인으로 기능하기 때문이다[20]. 이러한 속성에 기인하여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그릿을 다양한 변수로 활용하여 구조적 관계를 밝히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20-22].

그릿 척도를 개발한 Duckworth를 필두로 해외에서도 국내 연구와 마찬가지로 입시가 중요한 중고등학생이나 육군사관생도, 대학생,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23,24]. 최근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그릿을 연구하는 경우도 소수 존재하며[25-27], 독서나 사회경제적 배경, 자기효능감, 선생님의 평가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동시에 그릿이 학업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함을 검증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국내에서도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그릿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졌으며[28-33], 주로 그릿을 통해서 초등학생의 학업, 운동지속의도, 행복과 같은 다양한 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선행연구에서 초등학생의 그릿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족과 학교요인을 확인할 수 있다. 성장기의 초등학생은 가족과 학교에서 영향을 받으며, 가족요인 중에서는 부모의 경제수준과 양육태도가 그릿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34-36]. 또한 학교요인 중 성적에 대한 태도, 교사 혹은 또래와의 관계는 그릿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37-39].

이러한 초등학생의 그릿에 대한 국내연구들은 해외연구와 중고등학생, 운동선수의 그릿 연구에서 확인된 사회경제적 지위, 학생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학업적 요인이나 심리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점이 존재하며, 주로 그릿의 영향력에 대해 검증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주로 중고등학생이나 대학생 혹은 운동선수 대상으로 그릿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선행학습으로 수업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또한 초등학생이 수업에 흥미를 느끼도록 하는 그릿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그릿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기존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가족과 학교 특성 요인으로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가족요인은 부모의 양육

태도와 가족과의 진로 관련 대화 빈도로 구성하였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와의 대화는 별개의 요인으로서, 양육태도에 관해서는 선행연구가 다수 진행되었으나 가족과의 대화에 대한 선행연구는 미흡하였다. 학교요인은 선행연구에서 검증된 변수를 투입하였는데, 가족요인과 동시에 투입하여 그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초등학생의 그릿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문제1: 가족 요인과 학교 요인은 초등학생의 그릿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2: 초등학생 그릿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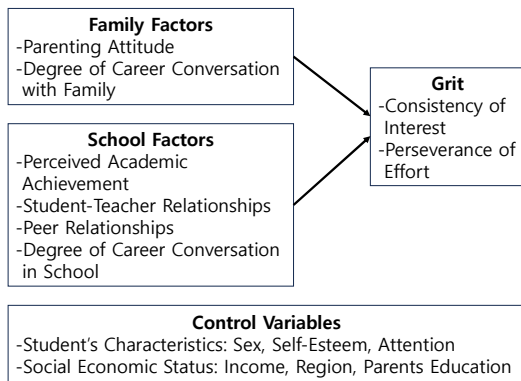


Fig. 1. Study model

## 2. 연구방법

### 2.1 자료수집 및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하여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이하 "KCYPs 2018") 제5차년도(2022년)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자료는 2018년부터 시작된 공식통계조사 자료로 전국 17개 시도별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모집단으로 하고 있다. 교육통계연보를 기준으로 지역 구분과 학교 구분을 층화변수로 고려하고 확률비례 집락추출방식으로 표본을 추출하여 대표성이 확보된 데이터이다[40]. 특히, 이 자료는 그릿 척도를 포함하고 학생의 가족 및 학교특성, 그리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부학력, 모학력, 부직업, 모직업 등)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본 연구의 분석자료로 적합하다고 여겨진다. KCYPs 2018 제5차년도(2022년) 자료에는 전국 초등학교 4학년(2,607명)과 중학교 1학년(2,590명)에 재학 중인 아동·청소년 및 보호자 총 5,197

명의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다. 이 중, 초등학교 4학년은 인지 능력이 발달하는 아동기로서, 이 시기에 그릿을 향상시키는 것은 이후 학교생활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는 모든 항목에 성실하게 대답한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2,128명을 최종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결측값 처리를 위해 완전제거법(Listwise) 기법을 사용하였다.

### 2.2 변수구성 및 측정방법

#### 2.2.1 종속변수: 그릿

종속변수인 그릿을 측정하기 위해 KCYPs 2018 제5차년도(2022년) 자료에서 사용한 그릿 척도를 사용하였다. 그릿은 총 2가지 하위요인인 '노력지속'과 '흥미유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력지속 4문항, 흥미유지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응답범주는 Likert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노력지속과 흥미유지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노력지속의 Cronbach's alpha값은 .642, 흥미유지의 Cronbach's alpha값은 .696으로 나타났다.

#### 2.2.2 가족요인

가족요인은 부모의 양육태도와 가족과의 진로 관련 대화 빈도로 구성하였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김태명과 이은주[41]가 타당화한 부모의 양육태도 척도(PSCQ\_KA)를 사용하였다. 부모의 양육태도 척도는 '따스함', '거부', '자율성지지', '강요', '구조제공', '비일관성' 등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42], 각 4문항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설정되었다. 값이 높을수록 각 요인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가족과의 진로 관련 대화 빈도는 아버지, 어머니, 형제·자매, 친척·친지 등과의 진로 관련 대화 빈도를 묻는 리커트 4점 척도 4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과의 진로 대화 빈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 2.2.3 학교요인

학교요인은 주관적 성적 평가, 교사관계, 친구관계 및 교내 진로 관련 대화 빈도로 구성하였다. 주관적 성적 평가는 지난 학기 전 과목 성적 수준이 어떠한지 묻는 리커트 5점 척도 단 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성적을 높게 인식함을 의미한다. 교사관계는 김종백과 김남희[43]가 타당화한 학생-교사 애착관계 도구(STARS)를 사용하였으며, 총 14문항의 4점 리커트척도를 산술평균 계산하여 사용하였다[44]. 점수가 높을수록 학생-교사 관계가 좋

음을 의미한다. 친구관계는 배성만 외[45]가 타당화한 총 13문항으로 구성된 청소년 또래관계 질 척도를 사용하였다[46]. 해당 문항은 리커트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술평균으로 계산하여 값이 높을수록 친구관계가 좋을 것을 의미한다. 교내 진로 관련 대화빈도는 학교 선생님, 상담교사, 학원/과의 선생님과 교내 진로 관련 대화 빈도를 묻는 리커트 4점 척도 3개로 구성되어 있다. 산술평균으로 계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교내 진로 관련 대화빈도가 높음을 나타낸다.

### 2.2.4 통제변수

그릿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알려진 학생 특성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 학생 특성은 성별, 자아존중감, 주의집중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가구소득, 거주지역, 부학력, 모학력 등으로 구성하였다. 지금까지 설명한 변수구성 및 측정방법을 정리한 내용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Variable Composition and Operational Definition

Category	Variables		Measure
DV	Grit		Likert 4
IV	Family Factors	Parenting Attitudes	Likert 4
		Degree of Career Conversation with Family	Likert 4
	School Factors	Perceived Academic Achievement	Likert 5
		Student-Teacher Relationships	Likert 4
		Peer Relationships	Likert 4
		Degree of Career Conversation in School	Likert 4
CV	Student's Characteristics	Sex	M/F
		Self-Esteem	Likert 4
		Attention	Likert 4
	Social Economic Status	Income	Likert 12
		Region	City/Town
		Father's Education	Likert 6
	Mother's Education	Likert 6	

### 2.3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는 SPSS WIN 26.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으며, 자료분석방법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초등학생의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가족요인과 학교요인이 그릿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3. 분석결과

### 3.1 주요 변수의 특성

본 연구의 주요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먼저, 그릿의 하위요인인 노력지속과 흥미유지 두 가지 모두 평균 2.60점으로 보통 이상의 그릿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과 주의집중은 각각 평균 2.99점과 2.09점으로 중위값보다 더 높았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마스함, 자율성지지, 구조제공 등 긍정적인 양육태도 점수는 평균 2점대 후반에서 3점대 초반으로 높은 점수를 형성하고 있는 반면 거부, 강요, 비밀관성 점수는 평균 1.89점에서 2점대 초반으로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가족과의 진로 대화 빈도와 교내 진로 대화 빈도 각각 평균 2.90점과 2.42점으로 중위값보다 더 높았으며, 주관적 성적 평가 역시 5점 만점에 3.56점으로 학생 본인의 성적을 높은 수준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친구관계와 교사관계는 각각 4점 만점에 평균 3.06점과 2.80점으로 교우 및 교사와의 관계가 원만한 편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Table 2. Descriptives of Variables

Variables		Min.	Max.	M	SD
Grit	Perseverance of Effort	1.00	4.00	2.60	0.51
	Consistency of Interest	1.00	4.00	2.60	0.53
Parenting Attitudes	Warmth	1.00	4.00	3.25	0.57
	Rejection	1.00	4.00	1.89	0.64
	Autonomy Support	1.00	4.00	3.21	0.55
	Coercion	1.00	4.00	2.20	0.60
	Structure	1.00	4.00	2.98	0.51
	Chaos	1.00	4.00	2.11	0.60
Degree of Career Conversation	with Family in School	1.00	4.00	2.90	0.69
		1.00	4.00	2.42	0.77
Perceived Academic Achievement		1.00	5.00	3.56	0.72
Peer Relationships		1.69	4.00	3.06	0.40
Student-Teacher Relationships		1.00	4.00	2.80	0.46
Self-Esteem		1.30	4.00	2.99	0.44
Attention		1.00	4.00	2.09	0.57

### 3.2 그릿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초등학생의 가족과 학교 관련 요인이 그릿(노력지속, 흥미유지)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먼저, 노력지속 영향 요인을 검증한 모형을 살펴보면 F=31.381(p<.001)로 회귀모형이 적합했으며 Durbin-Watson 통계량은 1.878로 2에 근사한 값을 보여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가 없었고, 분산팽창지수(VIF) 역시 10 미만으로 다중공선성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결과를 살펴보면 부모의 양육태도(따스함), 주관적 성적 수준, 교사관계, 자아존중감, 주의집중, 가구소득, 거주지역, 모학력 등이 노력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먼저, 가족요인 중에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따스할수록( $\beta=0.065$ ,  $p<.001$ ), 노력지속이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요인 가운데는 주관적 성적이 높을수록( $\beta=0.074$ ,  $p<.001$ ), 교사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beta=0.144$ ,  $p<.001$ ) 노력지속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 중에는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beta=0.237$ ,  $p<.001$ ), 주의집중이 좋을수록( $\beta=-0.109$ ,  $p<.001$ ), 월평균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beta=-0.161$ ,  $p<.01$ ),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 $\beta=0.051$ ,  $p<.05$ )와 읍면지역( $\beta=0.066$ ,  $p<.01$ )에 거주하는 경우, 모학력이 높을수록( $\beta=0.052$ ,  $p<.05$ ) 노력지속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흥미유지 영향 요인을 검증한 모형을 살펴보면  $F=30.663$ ( $p<.001$ )로 회귀모형이 적합했으며 Durbin-Watson 통계량은 1.997로 2에 근사한 값을 보여 잔차

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가 없었다. 분산팽창지수(VIF) 역시 10 미만으로 다중공선성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가족요인 중에서는 노력지속과는 다르게 부모의 구조제공 정도가 높을수록( $\beta=-0.069$ ,  $p<.001$ ), 비밀관성이 높을수록( $\beta=-0.064$ ,  $p<.05$ ) 초등학생의 흥미유지 정도는 점점 감소하였고 가족 간 진로대화빈도가 많을수록( $\beta=0.087$ ,  $p<.001$ ) 흥미유지 정도는 증가하였다. 학교요인의 경우 주관적 성적이 높을수록( $\beta=0.051$ ,  $p<.05$ ) 흥미유지 정도는 역시 증가하였다. 통제변수의 경우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beta=-0.100$ ,  $p<.001$ ), 자아존중감이 높거나( $\beta=0.064$ ,  $p<.05$ ), 주의집중이 좋을수록( $\beta=-0.375$ ,  $p<.001$ ) 흥미유지 정도는 증가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 4. 결론

본 연구는 가족 및 학교 요인, 학생 특성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포함한 기타 특성이 초등학생의 그릿(노력지속, 흥미유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였다.

첫째, 가족 요인의 경우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이 통제된 상태에서 부모의 양육태도가 따스할수록, 초등학생의 노력 지속은 증가하였다. 또한, 부모의 구조제공 정도가 높거나 비밀관적 양육 태도가 증가하면 초등학생의 흥미유지 정도는 점점 감소하는 반면에 가족 간 진로 대화 빈도가 높을수록 흥미유지 정도는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다양한 선행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몇 가지 선행연구에서도 연구결과와 동일하게 부모의 양육태도가 그릿에 대한 영향이 유의했다[47-49]. 또한, 부모의 대화빈도와 시간이 그릿에 의해 유의하다는 선행연구[50]와 가족 간 진로대화 빈도가 높을수록 흥미유지가 증가한다는 점이 동일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자녀와의 많은 대화는 초등학생과 같은 이른 시기부터 장기적인 끈기와 노력을 보여주는 그릿을 기르는 원동력으로 작용하는 원동력임을 보여준다.

둘째, 학교 요인 중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이 통제된 가운데 주관적 성적이 높을수록 노력지속과 흥미유지 정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교사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초등학생의 노력지속 정도는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선행연구에서 성적이 높을수록 그릿이 높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검증한 선행연구

Table 3. Effect on Grit

Independent Variables		Perseverance of Effort		Consistency of Interest	
		B	$\beta$	B	$\beta$
Family Factors	Warmth	.059***	.065	-.042	-.045
	Rejection	-.032	-.040	.005	.006
	Autonomy Support	-.003	-.003	-.002	-.002
	Coercion	-.016	-.018	-.022	-.024
	Structure	.024	.024	-.073**	-.069
	Chaos	-.012	-.014	-.057*	-.064
	Degree of Career Conversation with Family	-.024	-.032	.087***	.113
School Factors	Perceived Academic Achievement	.052***	.074	.037*	.051
	Peer Relationships	.000	.000	.003	.002
	Student-Teacher Relationships	.161***	.144	.027	.024
	Degree of Career Conversation in School	.026	.038	-.009	-.014
Student's Characteristics	Sex	.018	.017	-.106***	-.100
	Self-Esteem	.276***	.237	.064*	.053
	Attention	-.099***	-.109	-.375***	-.400
Social Economic Status	Income	-.016**	-.061	-.009	-.034
	Medium city	.054*	.051	.009	.008
	Town	.092**	.066	-.054	-.037
	Father's Education	.001	.001	-.016	-.031
	Mother's Education	.028*	.052	-.014	-.025
F		31.381***		30.663***	
R <sup>2</sup> (adj R <sup>2</sup> )		.229(.221)		.225(.217)	
VIF		1.036~2.598		1.036~2.598	
Durbin-watson		1.878		1.997	

Ref: Sex(Female), City/Town(Metropolitan city)  
\*  $p<.05$ , \*\*  $p<.01$ , \*\*\*  $p<.001$

를 지지한다[51]. 또한, 교사와의 관계가 그릇을 높인다는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교사와의 관계가 그릇에 대해 영향이 유의하다고 나타난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며[52], 교사-학생 멘토십 프로그램이 그릇을 높인다는 결과와도 유사하다. 이를 통해 학교 요인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성적과 교사와의 관계임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학생 특성 중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흥미유지 정도가 더 낮고 자아존중감이 높거나 주의 집중이 좋을 수록 노력지속과 흥미유지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아존중감과 주의집중이 그릇을 높인다는 선행연구들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53-55]. 따라서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주의집중을 높일 경우에 그릇까지 높아짐을 시사한다.

넷째,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중 가구소득, 거주지역, 모학력 등이 노력지속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예상과는 다르게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오히려 초등학생의 노력지속 정도가 감소하고 대도시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이 중소도시 및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에 비해 노력지속 정도가 더 낮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은 특권적인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그렇지 못한 학생에 비해 더 빠르게 다양한 비인지능력(예, 소통, 집념, 끈기, 열정 등)을 기를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 것과는 다른 결과이다[56,57]. 일반적으로 대도시에 사는 사회경제적 배경이 좋은 상류층 학생들이 성장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경험을 접할 기회가 많아서 노력지속과 같은 비인지능력을 기르는 데 더 유리할 수 있지만 지방에서 살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의 경우라도 부모의 지나나 교사의 남다른 지원을 통해 노력지속과 같은 역량을 배양할 수 있다. 이러한 추측은 부모의 파스함과 교사 관계가 사회경제적 배경 요인에 비해 노력지속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볼 때 이해할 만하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존재한다. 첫째는 연구 자료 특성 상 모든 연구대상자의 연령이 초등학교 4학년생으로 동일하므로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의 연구결과로 일반화가 어렵다. 둘째는 가족요인, 학교요인, 학생특성, 부모의 사회경제적 특성의 보다 다양한 변수를 투입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양한 특성의 변수를 투입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연구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다양한 변수를 독립변수로 고려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차별성을 지닌다. 그동안의 그릇 관련 선행연구들은 주로 전국이 아닌 수도권 거주 지역 학생으로 대상을 제한하였거나 그릇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다양한 배경 요인을 충분히 통제하지 않은 채로 중 고등학생이나 성인의 그릇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었다. 반면, 본 연구는 전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나 자아존중감 혹은 주의 집중과 같은 학생의 개인 특성을 충분히 통제된 상태에서 가족 요인과 학교 요인이 초등학생의 그릇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초등학생과 같은 어린 시기부터 그릇을 기르는 데 필요한 요인을 심도 있게 파악하였다는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 결과에 따라 학생의 개인 특성이나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통제된 상태에서도 그릇에 영향력이 높은 부모의 파스한 양육 태도나 교사와의 관계를 고려한 통합적인 그릇 증진 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하다. 초등학생과 같은 이른 시기부터 그릇 등의 비인지능력을 기르게 되면 청소년기에 좋은 학업성취는 물론 진로 발달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과 같은 보다 어린 시기에 그릇을 기르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함께 활발한 후속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 References

- [1] A. J. Kim, "Selection exams for elementary medical school classes are in progress", spreading even to local rural academies [Internet]. ChosunMedia, [cited 2023 June 21] <https://www.chosun.com/national/weekend/2023/06/17/5P6FOUMFSZSXJOG7GLRGH5VAQ/> (accessed Dec. 21, 2023)
- [2] T. W. Lim, Even an 'elementary medical school class' appeared... Children flocking to advanced learning [Internet]. SBS News, [cited March 08, 2023]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105946&plink](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105946&plink) (accessed Dec. 21, 2023)
- [3] Y. C. Kim, J. H. Jung, *Shadow education as worldwide curriculum studies*, p.261,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2019.
- [4] Y. C. Kim, J. H. Jung, *Theorizing shadow education and academic success in East Asia: understanding the meaning, value, and use of shadow education by East Asian students*, p.259, Routledge, 2021.
- [5] J. H. Jung, "Elementary School Teachers' Dilemmas and Teaching Strategies for Preview Learning",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22, No.7, pp.597-613, April 2022.

- DOI: <http://doi.org/10.22251/ilcci.2022.22.7.597>
- [6] A. L. Duckworth, T. A. Kirby, E. Tsukayama, H. Berstein, K. A. Ericsson, "Deliberate practice spells success: Why grittier competitors triumph at the National Spelling Bee",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Vol.2, No.2, pp.174-181, Oct. 2011.  
DOI: <https://doi.org/10.1177/1948550610385872>
- [7] C. A. Wolters, M. Hussain, "Investigating grit and its relations with college students' self-regulated learning and academic achievement", *Metacognition and Learning*, Vol.10, pp.293-311, Nov. 2014.  
DOI: <https://doi.org/10.1007/s11409-014-9128-9>
- [8] H. Y. Tak, G. P. Cho, "Relationship between Grit and Academic Achievement in Middle School Students : The Mediating Effect of Academic Engagement",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Vol.27, No.3, pp.329-348, June 2021.  
DOI: <http://doi.org/10.24159/ioec.2021.27.3.329>
- [9] H. S. Cho,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est, Deliberate Practice and Grit of Students in Physical Education Classes", *The Korean Society of Sports Science*, Vol.29, No.1, pp.525-537, Feb. 2020.  
DOI: <http://doi.org/10.35159/kiss.2020.02.29.1.525>
- [10] T. Mandelbaum, "The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and grit in lower income adolescents", *Journal of Character Education*, Vol.14, No.1, pp.59-74, 2018.
- [11] S. J. Kim, G. Y. Yun, "Exploring Factors Influencing Grit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Using Random Forest",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24, No.2, pp.453-472, Dec. 2024.  
DOI: <https://doi.org/10.22251/ilcci.2024.24.2.453>
- [12] M. S. Kim, S. H. Lee, S. H. Paik, "The environmental factors affecting students' grit scores and their differences across sex and grade",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5, No.5, pp.297-322, 2015.
- [13] E. A. Kim, J. E. Lee, H. R. An, "Grit Influencing Factors in Middle School Students: Focusing on Ego Resilience and Emotional Intelligence", *Korean Journal of Health Communication*, Vol.16, No.2, pp.167-176, Dec. 2021.  
DOI: <https://doi.org/10.15715/kjhcom.2021.16.2.167>
- [14] M. R. Yoon, "Influence of environmental factors in middle school students on grit: Focusing on gender difference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21, No.14, pp.411-428, July 2021.  
DOI: <https://doi.org/10.22251/ilcci.2021.21.14.411>
- [15] H. W. Chung, Y. E. Baek, A. R. Kim, "Exploring Influencing Variables on a Longitudinal Change of Middle School Students' Grit", *Research on Korean education issues*, Vol.40, No.1, pp.53-74, March 2022.  
DOI: <http://doi.org/10.22327/kei.2022.40.1.053>
- [16] S. M. Jang, "The Effect of Grit on Flow and Satisfact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Participating in the Free-semester System", *Coaching Ability Development*, Vol.23, No.4, pp.173-179, Dec. 2021.  
DOI: <http://doi.org/10.47684/jcd.2021.12.23.4.173>
- [17] C. S. Park, K. R. Oh, S. H. Kim, "Effect of the type of feedback of physical education teachers on the attitude and grit of high school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Vol.61, No.2, pp.165-174, March 2022.  
DOI: <http://doi.org/10.23949/kjpe.2022.3.61.2.13>
- [18] B. P. Kim, H. J. Park, "The Effect of High School Students' Career Decision-Making Autonom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e Mediating Effect of Grit",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28, No.10, pp.185-213, Oct. 2021.  
DOI: <http://doi.org/10.21509/KJYS.2021.10.28.10.185>
- [19] H. J. Shin, "The Relationship between Positive Parenting Attitudes and Career Adaptability among High School Students: Analysis of Mediation Effects of Grit and Self-Esteem", *Psychological Type & Human Development*, Vol.24, No.1, pp.17-37, May 2023.  
DOI: <http://doi.org/10.52745/KAPT.2023.24.1.17>
- [20] C. I. Yang, B. K. Jung,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the Mindset, Grit, and Exercise Adherence Intention of Middle and High School Baseball Players", *Korean society for Wellness*, Vol.16, No.2, pp.199-206, May 2021.  
DOI: <http://doi.org/10.21097/ksw.2021.05.16.2.199>
- [21] W. S. An, "The Effect of Self-Determination Motivation on Grit of Middle and High School Athletes : The Mediating Effects of Ego Resilience and Multidimensional Sport Confidence", *The Korean Journal of Sport*, Vol.18, No.3, pp.771-782, 2020.  
DOI: <http://doi.org/10.46669/kss.2020.18.3.070>
- [22] S. H. Youn, "The Effect of Grit and Problem Solving Ability of Adult Taekwondo Players on Exercise Persistence", *The Korean Journal of Sport*, Vol.19, No.4, pp.643-651, 2021.  
DOI: <http://doi.org/10.46669/kss.2021.19.4.056>
- [23] A. L. Duckworth, M. E. Seligman, "Self-discipline outdoes IQ in predicting academic performance of adolescents", *Psychological science*, Vol.16, No.12, pp.939-944, Dec. 2005.  
DOI: <https://doi.org/10.1111/j.1467-9280.2005.01641.x>
- [24] J. Bashant, "Developing grit in our students: Why grit is such a desirable trait, and practical strategies for teachers and schools", *Journal for Leadership and Instruction*, Vol.13, No.2, pp.14-17, 2014.
- [25] K. Bozgun, M. Akin-Kosterelioglu, "Variables Affecting Social-Emotional Development, Academic Grit and Subjective Well-Being of Fourth-Grade Primary School Students", *Educational Research and Reviews*, Vol.15, No.7, pp.417-425, July 2020.
- [26] E. L. Usher, C. R. Li, A. R. Butz, J. P. Rojas, "Perseverant grit and self-efficacy: Are both essential for children's academic succes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111, No.5, pp.877-902, 2019.  
DOI: <https://psycnet.apa.org/doi/10.1037/edu0000324>

- [27] M. Lee, G. Ha, "The role of peer relationships amo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Focusing on the mediation effects of grit depending on teacher-student relationships", *Current Psychology*, Vol.42, No.22, pp.18463-18472, Aug. 2023.  
DOI: <https://doi.org/10.1007/s12144-022-03359-6>
- [28] B. E. Kang, "Grit and Cooperative Competence: The Mediating Impact of Children's Grit on the Association between Parent's Grit and Children's Cooperative Competence",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Vol.31, No.3, pp.409-435, Sep. 2021.  
DOI: <http://doi.org/10.21024/pnuedi.31.3.202109.409>
- [29] I. S. Kim,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growth mind, self-regulation, grit, and intention of athletic participation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Physical Education*, Vol.23, No.3, pp.191-203, 2018.  
DOI: <http://doi.org/10.15831/JKSSPE.2018.23.3.191>
- [30] D. M. Kim, K. H. Yoo, "The mediating effect of grit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gender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ositive parenting attitude and academic enthusiasm perceived by upper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hild Education*, Vol.31, No.3, pp.41-64, 2022.  
DOI: <http://dx.doi.org/10.17643/KJCE.2022.31.3.03>
- [31] Y. K. Kim, "A Study on the impact of the school grade stress of higher-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upon GRIT and the satisfaction with life: Focusing on a multiple group analysis on the achievement pressure from mother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3, No.11, pp.462-477, Nov. 2022.  
DOI: <https://doi.org/10.5762/KAIS.2022.23.11.462>
- [32] H. S. Choi, S. Y. Han, "The effects of parents' academic achievement pressure on school adjustment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s of children's academic stress and grit",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21, No.8, pp.499-510, April 2021.  
DOI: <https://doi.org/10.22251/ilcci.2021.21.8.499>
- [33] H. W. Chung, So. Y. Park, "Classifying Latent Profiles in Grit and Happiness of Adolescents and Testing the Effects of Individual, Parental, Peer and Teacher Factors", *SECONDARY EDUCATION RESEARCH*, Vol.68, No.1, pp.135-167, March 2020.
- [34] S. M. Park, U. I. Park, "The Mediating Effect of Gri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Attachment and Adolescent Happines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Vol.38, No.2, pp.29-49, July 2020.  
DOI: <http://doi.org/10.7466/JKHMA.2020.38.2.29>
- [35] A. Duckworth, J. J. Gross, "Self-Control and Grit: Related but Separable Determinants of Success",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Vol.23, No.5, pp.319-325, Oct. 2014.  
DOI: <https://doi.org/10.1177/0963721414541462>
- [36] J. H. Kim, "The Effect of Parenting Attitudes on Academic Helplessness mediated by Grit and Depression in Adolescents", *Social Welfare Policy and Practice*, Vol.8, No.2, pp.45-78, July 2022.  
DOI: <https://doi.org/10.37342/swpp.2022.8.2.45>
- [37] K. H. Jung, S. J. Cho, "The Effects of self-efficacy and grit on school adaptation flexibility in at-risk adolescent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4, No.1, pp.473-480, Jan. 2023.  
DOI: <http://doi.org/10.5762/KAIS.2023.24.1.473>
- [38] S. I. Lim, "A Study on the Longitudinal Relationship Analysis among Teacher attachment relationship, Grit, and Self-learning time using Latent growth modeling",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22, No.12, pp.315-331, June 2022.  
DOI: <http://doi.org/10.22251/ilcci.2022.22.12.315>
- [39] K. Y. Cho, S. Y. Kim, "Parenting Attitudes and Life Satisfaction of Parents and Children: The Serial Mediating Effects of Children's Grit and Peer Relationship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28, No.1, pp.23-47, Jan. 2021.  
DOI: <http://dx.doi.org/10.21509/KJYS.2021.01.28.1.23>
- [40] H. W. Chung, H. J. Jeon, A. R. Kim, "Classifying latent profiles in terms of the grit and academic engagement of adolescents and testing the effect of relevant factors", *Studies on Korean Youth*, Vol.32, No.1, pp.117-146, Feb. 2021.  
DOI: <http://doi.org/10.14816/sky.2021.32.1.117>
- [41] T. M. Kim, E. J. Lee,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Parents as Social Context Questionnaire for Adolescents: PSCQ\_KA",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24, No.3, pp.313-333, March 2017.  
DOI: <http://doi.org/10.21509/KJYS.2017.03.24.3.313>
- [42] A. Naqvi, *STUDYING THE IMPACT OF GRIT IN THE LEARNING OF YOUNG CHILDREN BY WAY OF IMPLEMENTING A STUDENT-TEACHER MENTORSHIP PROGRAM IN ELEMENTARY GRADES*, Ph.D dissertation, National Louis University, Chicago, USA, pp.26-27, 2021.
- [43] J. B. Kim, N. H. Kim, "Validation of Student-Teacher Attachment Relationship Scale(STARS) as a Basis for Evaluating Teachers' Educational Competencies",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23, No.4, pp.697-714, Dec. 2009.
- [44] J. Y. Hwang, "Environmental Factors Influencing the Grit of Adolescents: Focusing on Comparison of Friendship, Teacher Relationship, and Parental Relationship", *Journal of Social Welfare Management*, Vol.8, No.2, pp.273-298, Dec. 2021.
- [45] S. M. Bae, J. Y. Hong, M. H. Hyun, "A Validation Study of the Peer Relationship Quality Scale for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22, No.5, pp.325-344, May 2015.
- [46] H. W. Kwon, "What Can Sociology Say About Grit? A Cross-Cultural Exploration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Socioeconomic Status, Sense of Control, and



- Grit", *Socius*, Vol.7, 23780231211005216, April 2021.  
DOI: <https://doi.org/10.1177/23780231211005216>
- [47] A. L. Duckworth, C. Peterson, M. D. Matthews, D. R. Kelly, "Grit: perseverance and passion for long-term goa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92, No.6, pp.1087-1101, 2007.  
DOI: <https://psycnet.apa.org/doi/10.1037/0022-3514.92.6.1087>
- [48] S. R. Lee, Y. W. Sohn, "Effects of grit on academic achievement and career-related attitudes of college students in Korea",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an International Journal*, Vol.45, No.10, pp.1629-1642, 2017.
- [49] A. L. Duckworth, & P. D. Quinn,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hort Grit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Vol.91, No.2, pp.166-174, 2009.
- [50] M. H. Hwang, "Exploring the Meaning of Grit and Interventional Implications for the Academic Counseling", *The Korean Journal of Elementary Counseling*, Vol.18, No.1, pp.1-21, Jan. 2019.  
DOI: <http://doi.org/10.28972/kiec.2019.18.1.001>
- [51] H. R. Park, J. B. Lee, "The Effect of Grit Enhancement Program on Career Maturity and Academic Self-efficacy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n Practical Arts Education*, Vol.28, No.3, pp.55-75, Aug.2022.  
DOI: <https://doi.org/10.29113/skpaer.2022.28.3.03>
- [52] H. R. Kim, A. K. Jung, "Exploring the applicability of career adaptability to career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34, No.4, pp.83-103, Dec. 2021.  
DOI: <https://doi.org/10.32341/JCER.2021.12.34.4.83>
- [53] Y. A. Jang, S. Y. Kim,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Adolescent's Grit: Individual Factor, Parent Factor, School Factor", *Journal of Industrial Convergence*, Vol.19, No.4, pp.57-64, Aug. 2021.  
DOI: <http://doi.org/10.22678/JIC.2021.19.4.057>
- [54] B. J. Jin, H. W. Chung, "The Effect of Parenting Attitude, Relationship with Friend and Teacher on Life Satisfaction of Adolescents: The Mediating Effect of Grit",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20, No.5, pp.141-165, March 2020.  
DOI: <http://doi.org/10.22251/ilcci.2020.20.5.141>
- [55] M. S. Kim, S. H. Lee, S. H. Paik, Y. S. Choi, "The environmental factors affecting students' grit scores and their differences across sex and grade",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5, No.5, pp.297-322, May 2015.
- [56] W. R. Lee, C. W. Han, "The Mediating Effect of Academic Enthusiasm and Gri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Positive Parental Attitudes and Self-Esteem for Middle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29, No.9, pp.53-81, Sep. 2022.  
DOI: <http://doi.org/10.21509/KJYS.2022.09.29.9.53>
- [57] H. W. Seo, S. Y. Lee, H. J. Lim, "The Effects of Parent-Child Conversation Hours on Children's Grit:

The Moderating Effect of Inconsistent Parenting Attitude", *The Journal of Education*, Vol.41, No.3, pp.123-143, Sep. 2021.  
DOI: <http://doi.org/10.25020/je.2021.41.3.123>

이 정 화(Jung-Hwa Lee)

[정회원]



- 2012년 8월 : 서울기독대학교 치유상담대학원 (문학석사)
- 2023년 3월 ~ 현재 : 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관심분야>  
사회복지